

2018~2019 영국 공연계 최저 임금(주급) 논쟁, 젠더(Gender) 문제로 확산

글_김준영(런던통신원, 런던 ILOVESTAGE Ltd. 프로듀서 junyoung.kim@ilovestage.com)

지난 2014년 여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에서 시어터랜드(Theatreland)라 불리는 웨스트엔드 극장산업을 조사하기 위해 런던을 방문했을 때 필자는 공연관계자 미팅을 준비하고 있었고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극장협회(SOLT)의 대표자인 줄리안 버드(Julian Bird, 현 Chief Executive)와 함께 자리할 수 있었다. 그는 웨스트엔드 평균 55개 상업 공연장에서만 연간 1,500만 관객을 동원하는 런던의 극장주와 프로듀서를 대변하며 매년 성공을 이어가고 있는 기관의 수장으로 당시 반갑게 맞이했던 우리 문체부 인사에게 1980년대 이후 세계 공연제작 환경이 브로드웨이(평균 36개 공연장에서 1,300만 관객)에서 런던으로 넘어오게 된 배경을 비교적 낮게 측정된 매력적인 제작비와 그로 인해 모여든 풍부한 인적자원으로 평가했다. “뉴욕보다 최대 약 2~3배 낮은 런던의 공연 제작비가 다양한 공연을 만들수 있는 매력적인 조건을 제시해왔다”는 언급에 문체부 일행의 놀란 표정이 기억난다. 다시 말하자면 특정 지역에서 제품을 생산하고 특정한 시장에서 이후 유통을 담당하는 모델은 공연 산업에서도 돈의 흐름에 지배되고 있었다는 것이다.

최근 이를 일부 뒷받침할 수 있는 조사가 영미 공연계에 발표되면서 특히 런던의 공연계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는데 다름 아닌 배우들과 무대감독의 직접적인 주간 임금 비교가 그것이다. 참고로 영국이나 미국은 배우들에게 월급이 아닌 주 단위로 정산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식이다. 대서양 바다 건너 활동하는, 자신들이 먼저 만들어놓은 작품의 복제된 공연(Replica)에서 복제된 의상을 입고, 복제된 대사를 활용하는 브로드웨이 배우들보다 매우 낮은 임금을 받고 있었음이 공식적으로 공개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창작공연이 있을 수 있지만 이 경우엔 자신들의 노동의 가치를 직접 비교하기에 적합하지

않아 런던에서 만들고 뉴욕에서 공연되어지는 공연 작품들을 애써 비교한 것이다.)

먼저 극장협회와 배우조합(Equity)이 합의한 2018~2019년 기본 임금을 보자. 런던 배우들은 똑같은 노동 시간을 두고 극장의 객석수에 따라 차등지급을 받고 있다. 아래 제시된 표를 보면 런던의 높은 물가수준을 고려할 때 주 단위로 지급되는 임금이 그렇게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018~2019 런던 극장협회와 배우협회가 합의한 미니멈 주급 현황

극장 객석수			
	1,100석 이상	800~1,099석	1~799석
배우	£695(100만원)	£632(91만원)	£569(82만원)

2018~2019 런던 극장협회와 배우협회가 합의한 미니멈 주급 현황

극장 객석수			
	1,100석 이상	800~1,099석	1~799석
무대감독	£815(118만원)	£752(108만원)	£689(99만원)

《The Stage》 제공

물론 이 주급외에도 법적 휴가, 쉬는 시간, 리허설 기간에 지불되는 비용, 런던이 아닌 지방에서 출퇴근 하는 배우들에게 교통비, 또는 숙소, 그리고 언더스터디처럼 추가 역할이 주어지면 기본급에 더해지는 “엑스트라”가 있기 마련이다. 런던 무대감독 분야 역시 객석수에 따른 극장의 크기를 기준으로 위와 같은 합의된 주급을 지급받고 있다.

2018~2019 브로드웨이 배우협회가 합의한 미니멈 주급 현황

주된 배역 외 역할이 주어질 때 자동 추가 조항				
코러스 역 추가시 공연에서 장치 전환 언더스터디, 스윙 역 추가				
배우	\$2,034 (218만원)	\$20 (2만1천원)	\$8 (8천5백원)	\$107.70 (11만5천원)

2018~2019 브로드웨이 무대감독 미니멈 주급 현황

연극/뮤지컬 무대감독		
	뮤지컬	연극
무대감독	\$3,342(358만원)	\$2,872(308만원)
무대조감독	\$2,649(284만원)	\$2,347(251만원)

《PLAYBILL》 제공

제작사 대표들은 브로드웨이의 높은 임금과 런던의 낮은 임금을 직접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항변한다. 뉴욕의 공연장 티켓의 평균 가격은 \$109 (£76/11만 원)이고 그에 비해 런던 공연은 £44(6만 3천 원)이기 때문이다. 임금 격차 수치는 임금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고려하지 않은 단순 비교로 집단간에 격차를 말할 수 없다.

실제로 지난달 플레이빌《PLAYBILL》을 통해 갑작스럽게 공개된 브로드웨이 최저 임금(주급)은 \$2,034 (£1,430/207만 원)로 런던과 £862(120만 원)의 차이가 “매주” 발생한다. 하지만 뉴욕의 경우 주급을 받은 배우가 감당해야할 숨은 비용이 상당하다고 알려져 있다. 오디션을 소개했던 에이전트, 매니저들에게 높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고, 다음 작품에 배역을 받지 못했을 때 국가의 실업수당은 겨우 6개월치만 지급된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영국 배우들은 국가 보건 서비스(NHS)를 통해 무료로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으나 미국의 배우들은 돈이 없으면 병원을 이용할 수 없는 위험 요소들이 미국 공연

산업에 종사하는 인력들의 주급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최근 공연 전문지인 더 스테이지《The Stage》에서는 패널들을 구성해 공연계 임금을 논의하다 해답을 찾지 못하자 임금논쟁은 자연스레 젠더 이슈(Gender Issue)로 번져갔다. 그렇다. 격차는 대서양 건너편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영국 공연계 내에서도 당연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최저 임금을 넘어서는 협상을 해야 하는 시점에 나타나는 남녀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는 공연계 갈등과 위화감의 환경을 조성할 수 있어 더욱 심각하다고 본 것이다. 공연 제작 현장에서 나타나는 노력의 대가보다 단지 여성배우의 역할이 남성배우보다 가치가 덜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오늘날 영국 공연계의 슬픈 현실이다.

제도적 또는 구조적 요인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더 받을 수 없거나 나와 다른 성별을 갖고 있는 사람과의 임금 격차를 줄일 수 없다면 강력한 공정 임금법(Fair Pay Act)이라도 제정해 강제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에 런던 공연계는 동일 노동에 동일 임금 법칙은 공연계에 적용하기 쉽지 않지만 비슷한 비중의 배역일 때 동일 임금을 줘야한다는 취지는 인정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새로운 법률이 공연계에 적용되어 배우들이 불만을 제기할 경우 공연 제작사는 가벼운 기자 회견을 통해 “그녀가 보여준 엄청난 재능에 감사를 표한다. 밝은 앞날을 기원한다”라며 계약을 하지 않았던 과거 방식으로는 소송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보다는 앞으로 제작사측에서 남녀 차별없이 공정하게 임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해명하거나 입증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런던에서 메건 마클과 해리왕자가 결혼식을 올리던 날 대학로 공연의 메카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공원에 모였다는 주말의 집회 역시 우리 연극계도 곧 참여해야 하는 논쟁의 일부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본다.